"반갑다, 연어야"

섬진강 올 105마리 포획…지난해보다 18마리 늘어

2010년 치어 방류 후 증가세…지난해 회귀율 첫 1%

섬진강에 연어들이 돌아오고 있다.

지난 2010년 치어 방류 이후 회귀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행태관 관계자들은 한껏 고무된 표정이다.

섬진관어류생태관은 4일까지 광양시 다압면과 하동군 악양면 등 2곳에 설치한 그물에서 모두 105마리의 연어를 포획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7마리보다 18마리 증가한 것이다.

방류 3~5년 후 회귀하는 특성을 감안할 때 한 해 10만 마리 정도를 방류했던 지난 2009년 이후 바다로 나간 연어 치어들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14만 마리, 올 초에는 65만 마리를 바다에 풀어줘 회귀 연어의 수는 계속해서 상당한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섬진강어류생태관은 31마리로부터 알 5만 개 받아 수정시켰다. 이 수정란은 20일이 지나면 발아되고, 다시 20일 후면 부화돼 내년 초 방류될 예정이다.

모천 회귀성을 지닌 연어 치어의 방류 장소를 광양시 다압면과 하동군 악양면으로 한정시킨 섬진강어류생태관은 매년 10월15일부터 11월 말까지 V자형 그물을 설치해 연어를 잡고 있다.

송금섭 관장은 "연어는 방류된 곳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통계수치의 오류는 없을 것"이라며 "연어 회귀가 전남의 건강한 생태계를 의미하는 만큼 상징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섬진강에 방류된 연어 치어가 태평양, 대서양 등을 돌아 성어가 돼 섬진강으로 돌아올 확률은 지금까지 고작 0.39%에 불과했다.

지난 1998년부터 15년간 무려 498만5000마리의 연어 치어가 바다로 나갔지만, 이 가운데 돌아온 연어는 1942마리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모두 162마리가 섬진강으로 돌아와 1.62%가 회귀한 것으로, 처음으로 회귀율이 1%대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섬진강어류생태관은 올 초 7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65만 마리의 연어 치어를 방류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야영장 '월출산 천황사'

(별 4개)

국립공원관리공단 전국 38곳 등급 정보 공개…13곳 '특급'

앞으로 전국 38개 국립공원 야영장의 시설 수준을 별표(★) 개수로 한눈에 알 수 있게 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5일 국립공원 야영장의 시설수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4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야영장별로 별표(★) 1개에서 4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등급정보를 공개했다. 이용자들이 국내 국립공원 야영장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등급 기준을 매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영장 등급은 기반시설(영지면적, 주차수용력, 전기, 가로등), 안전(소방, 안전장비, 대피계획), 위생(화장실, 개수대, 세면대), 입지환경(연중 개방기간, 접근성, 시설상태, 녹지율) 등을 종합 평가해 매겨졌다.

등급별로 살펴보면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특급야영장(★ 4개)은 야영 장비 일체를 빌려주는 월악산 닷돈재, 덕유산 덕유대, 소백산 남천 등 풀옵션야영장과 월출산 천황사, 태안해안 학암포 등 13개 야영장이다.

우수야영장(★ 3개)은 편의시설 상태가 비교적 우수하고 방송시설을 갖춰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곳이다. 지리산 뱀사골·내원, 한려해상 학동, 내장산 가인 등 15개 야영장이다.

보통야영장(★ 2개)은 수세식화장실, 취사장 등 기반시설과 소화기, 구급약품 등 안전장비를 갖춘 곳으로 지리산 달궁, 설악산 설악동, 덕유산 덕유대(일반), 월악산 덕주·용하 등 6개 야영장이다.

기본야영장(★ 1개)은 작은 영지와 화장실 등 최소한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야영장으로 월출산 경포대, 다도해해상 시목, 북한산 인수·석굴 등 5개 야영장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태안 마도 해저에 조선시대 침몰선…백자 111점 인양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관계자들이 5일 충남 태안 마도 해역에서 발견된 조선시대 고선박의 것으로 추정되는 닻을 건져 올려 크기를 측정하고 있다. 이 선박은 조선시대 첫 선박 실물로 추정된다. 사진 아래는 마도 해역서 인양된 조선 백자. /연합뉴스

18~19세기 추정 백자촛대 등…한국 수중 고고학 사상 최초

충남 태안 마도 해역에서 처음으로 조선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발견됐다. 그동안 이 해역에서는 고려 시대 배와 유물이 수차례 발견돼 '바닷속 경주' '바다의 타임캡슐'로 불리기도 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5일 "마도 해역을 발굴조사하는 과정에서 '마도 4호선'으로 명명한 침몰 고(古)선박을 발견했고, 주변에서 조선시대 백자 111점을 인양했다"고 밝혔다.

이 선박 내부에서는 조선 초기 것으로 추정되는 분청사기 2점이 발견됐다.

연구소는 "추후 자세한 조사와 분석이 있어야겠지만 한국 수중 고고학사상 최초로 발견된 조선시대 선박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마도 해역에서 태안선, 마도 1·2·3호선으로 명명한 고선박 4척을 발굴하고, 3만여 점의 유물을 인양한 바 있다. 앞서 4척은 모두 고려시대 선박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확인한 마도 4호선은 길이 11.5m, 폭 6m 규모이며, 모양은 전형적인 한국 고선박 형태를 띤다고 연구소는 덧붙였다.

선체 내부에 대한 시굴조사 결과 4단으로 구성된 외판재가 확인됐으며, 주변에서는 화물이 물에 젖지 않도록 받침 역할을 하는 원형 통나무들이 다량으로 발견됐다.

또 이번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조선시대 백자가 꾸러미로 확인됐다. 백자는 모두 111점으로 발견 당시 종류별로 10점씩 포개져 있는 상태였다. 특히 백자 촛대는 발굴된 사례가 없이 전세품(傳世品)만 남아있어 도자사적 가치가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 백자들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소는 "내년 정밀 조사가 진행되면 마도 4호선이 조선시대 것인지와 주변에서 발견된 백자와의 연관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마도 4호선에서는 분청사기 2점만이 발굴된 만큼 상당 수의 유물이 안에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kki@kwangju.co.kr

목포~中 컨테이너선 운항 또 중단

물량 감소에 적자 누적

목포항에서 중국을 오가던 정기 컨테이너선 운항이 모두 끊겼다. 이 항로는 목포시가 화물유치 지원금까지 지급하며 공을 들였다.

그러나 물동량 부족으로 중단, 목포항 활성화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2010년부터 12월 목포 신항부두에서 중국 등지를 오가던 중국 차이나쉬핑 컨테이너 운반선이 5일 운항 중단을 통보했다. 월 2~3항차 운항하던 이 운반선은 이날 컨테이너 40개를 싣고 마지막으로 신항 부두를 떠났다. 목포시는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에 따라 이 선사에 3년간 6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지급했다.

지난 5월 초에는 중국 톈진·다롄·칭다오항-목포 신항-일본 니이카타·토마코마이·쿠시로· 센다이항을 잇는 남성해운 소속 정기 컨테이너 운반선도 운항을 중단했다. 이 선박은 지난해 3월부터 주 1회 정기 운항했다.

목포와 중국을 오가는 카페리는 지난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 취항과 중단을 각각 반복한 바 있다. 목포신항 관계자는 "차이나쉬핑이 컨테이너 물량 감소로 적자가 누적돼 운항 중단을 통보했다"면서 "물동량이 늘면 다시 오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재운항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제 신항부두에서 일본을 오가는 천경해운만 남게 됐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전남도 '재난 초기 대응 매뉴얼' 마련

전남도는 6일 전국 최초로 '재난 초기 대응 매뉴얼'을 마련, 도와 시군 재난관련 부서에 배포하고 각종 재난의 초기 대응 시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재난 초기대응 매뉴얼'에는 초기단계 '시간대별' 조치사항들을 체계화해 신속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했으며 '지휘체계별' 임무와 역할도 명확히 규정했다.

또 전남도의 재난 관련 '부서별'에 대한 구체적 임무 부여를 통해 재난의 초기 대응에 협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한편 '개인별' 초기대응 임무와 역할도 명확하게 부여하고, 이를 개인별로 상시 소지 또는 부착토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에 혼선이 없도록 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